

# 나를 버리는 비결을 논하는 것이 종교

## 나와의 싸움에서 수 백 번 졌어도 다시 일어나 달려야 이긴자가 된다

### 사람의 몸이 곧 신의 그릇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담겼을 때는 그 몸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만 마귀의 영이 담겼을 때는 마귀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신이 담겼을 때는 마귀가 되고 하나님의 신이 담겼을 때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마귀 신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신이 담겨져 있는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신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신이 담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이 바로 들릴 수 없고 더더군다나 영생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객관성 있게 모든 것을 분별할 때에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 죄악세상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치라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의 의사를 따라 가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의사가 옳지, 적은 사람의 의사는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귀의 그릇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면 그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바로 마귀의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마귀의 그릇이나, 하나님의 그릇이나,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마귀의 그릇이면 생각 자체가 마귀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그릇이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그릇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생각을 제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고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은 죽음

인류역사 60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죽는 사람마다 죽기를 원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죽기 싫어하는데 만부득이 죽게 되는 그 죽는 원인이 뭐라는 걸 안다면 이젠 바로 굉장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굉장한 지식,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환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주관,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그냥 일축해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항상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걸 알면서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건 명령구리 중의 명령구리요, 맹추 중의 맹추요, 무식한 사람 중의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죽음인고로 자기의 생명이 죽는 걸 알면서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건 천하에 용서 받지 못할 악한 죄요, 천추의 한을 남기는 가장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 수 십, 수 백 번 넘어져 봐야 강자가 돼

이 사람이 죄를 지려야 질 수가 없었던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 줬고, 그 지옥에서 죄인들이 영원무궁토록 팔팔 뛰는 광경을 보여주고 그 아우성 소리를 듣게 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를 알고 수 십 년간을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씬으로써 말미암아 결국은 이긴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긴자라는 건 처음부터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자가 이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긴



구세주 조희성님

자가 되려면 수 십 번 넘어져봐야 강자가 돼 가지고 이긴자가 되는 것이지 이제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강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더러 일부러 죄를 지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씬으로써 저절로 넘어지게 되고 저절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마귀가 하나님을 꺾어 이겨서 하나님의 세상을 마귀가 점령한 것은 바로 마귀가 태초의 하나님을 꺾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이긴자 되기까지는 마귀가 수 백 번, 수 천 번을 넘어뜨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마귀가 승리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말이 쓰여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면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

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니까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그 사람한테 집중 공격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만 영생에 두고, 목적만 영생에 두고 백 번, 천 번 넘어져도 오뎅이 마냥 일어나서 또 달리고 또 달려야 그래야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 속에도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실패를 수 천 번 했기 때문에 이긴자가 된 것이지 이 사람이 수 천 번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이긴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목적을 가지고 백 번, 천 번 넘어져도 그 목적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오뎅이 마냥 일어나서 달리고 달려서 결국은 정취하고 만 것입니다.

### 영생을 뜻대로 삼고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나야

사람이라는 건 신의 그릇인고로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의 신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집이 됐다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가, 마귀 집이 됐다가 하나님 집이 됐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되고 마는 그러한 과정이 사람에게에는 누구든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깨끗하게 죄를 안 짓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수 백 번, 수 천 번 넘어졌다고 초창기부터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초창기부터 수 천 번 넘어졌지만 바로 하나님을 뜻대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영생을 뜻대로 삼고 수 백 번, 수 천 번 넘어져도 그 목적만은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다시 붙여 놓으면 꺾어진 자육이 더 굵어져서 그 자리가 다시 꺾이는 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미완성자이므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실수는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미완성자가 실수를 안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요, 미완성자는 반드시 실수를 하고,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만 넘어지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 몸이 마귀 그릇이 돼서 마귀 생각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 나라는 주체의식이 죽음의 원인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논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영생은 좋아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믿어진다 해서 그 영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기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학설을 과학적으로 논하고, 예언학적으로 논하고, 성경적으로 논하고, 불경적으로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죽음

의 원인이 죄요, 죽음의 원인이 나라라는 주체의식인고로 나라라는 주체의식을 제거만 하면 바로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린다는지, 나라라는 주체의식이 사람을 미워한다는지, 신경질을 낸다는지, 나라라는 주체의식이 화를 낸다는지 하면 피가 썩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는데 이 세상 과학자들도, 이 세상 의학박사들도 모르는 새로운 학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사자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출세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몸이 마귀의 그릇이 되면 99%가 죽을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귀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므로 욕심이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고, 화가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고, 신경질이 나려야 낼 수가 없는고로 그러므로 마귀의 영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 없게 되어 결국은 죽을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종교지 나를 버리는 작업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992년 3월 5일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피의 순환

이 장에서는 단순히 ‘피를 주고받는 다’는 것이 물질적인 붉은 액체만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정신적·영적 영역까지도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 몸의 최소 단위인 세포

우리 몸과 정신과 생명을 존재케 하는 피, 그 피도 또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사람의 몸과 생명을 만드는 최초의 물질이 피요, 그 피로써 온갖 세포, 즉 살 뼈 인대 머리카락 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6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사람을 올바로 알려면 세포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세포 하나의 원형질(原形質)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해 보면, 탄소(C), 수소(H), 산소(O), 질소(N), 황(S), 인(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철(Fe) 등 20여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원소는 원소 상태 그대로보다 몇 가지 원소들이 적당히 모여서 이루어진 분자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물(H<sub>2</sub>O), 단백질(C, H, O, N이 모여서 된 매우 큰 분자), 탄수화물(C, H, O로 된 분자), 지질(C, H, O로 구성), 핵산(DNA나 RNA를 말하며, C, H, O, N, P가 모여서 된 매우 큰 분자) 따위가 원형질 구성의 중요한 분자가 된다.

세포의 핵(Nucleus) 속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규정하는 유전자를 내부에 포함한다. 세포 내의 유전자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 있다. 특히, 염색체에는 유전자의 본체인 DNA가 포함되어 있으며 RNA, 단백질의 합성을 이용하여 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 우리 세포의 지능인 유전자는 우리를 세포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만들며, 무엇을 찾고, 무엇을 피해야 할 것인가를 너무도 정확하게 지시하고 확인한다. 세포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재생하고 분열하고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60조에 달하는 세포들이 어떻게 그처럼 조화롭게 살 수 있느냐, 능률적으로 자기 일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우며 수가 있을

## 수혈(受血)과 헌혈(獻血)의 영적 의미

### 물(H<sub>2</sub>O)도 神이다!



까 하고 감탄할 것이다.

세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식적·정신적·생산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自然)도 수단 가지의 색깔과 모양, 기능이 다르듯이 세포도 마찬가지로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방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들은 언뜻 가방을 들어 올릴 때, 자기 팔이 가방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포 간의

정보의 교류를 통해 근육 세포에게 지령을 전달하여 근육의 수축을 통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 팔의 근육 신경만을 통해 전달한다면 도저히 이치가 안 맞는다. 살과 근육 세포에 그 정보를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는 의식 수용체가 없다면 뇌의 지령에 따라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포의 역할과 속성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세포의 70% 이상이 물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 바로 물의 속성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다.

### 물은 의식과 지능이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 내의 물은 생물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거의 70-80% 정도에 이른다. 물은 생명 창조와 원천이자 그 자체이다. 지구 표면이 71%가 물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

고대로부터 물은 청정과 정화의 상징이자 여러 종교의 정화의식과 기도 정보로 전사(轉寫)한다. 그러므로 물을 깨끗이 하면 된다. 이런 종교적 행위에 물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혹은 기도의 열원이 물에 담겨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닐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아원자(亞原子)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물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아야 지능이 있음이 틀림없다.

과학계에서 물이 정보를 저장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사람은 프랑스의 과학자 자크 방브니스트 교수였다. 독일 슈트트 가르트 대학교 항공연구소는 물의 구조를 보이게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모든 물방울

이 자신만의 독특한 구조를 가졌음을 알아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을 사용했는데도 스포이드로 각자 네 방울의 물을 옮긴 연구자에 따라 물방울 구조가 다르게 나타났다. 물방울들이 각각의 사람들과 관련된 기억 또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결과였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의 결정을 찍은 사진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유리병에 담은 물에 ‘사랑’ ‘감사’라고 글씨를 보여주거나 말로 건네면, 그 물의 결정은 놀랍도록 아름답고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멍청한 놈’ ‘죽여 버리겠다’ 같은 부정적인 말에는 일그러지고 흉측한 모습을 보였다. 이걸 미루어 보아 글과 말에 담긴 뜻과 정서 에너지가 물이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대로 전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물에 대한 연구의 핵심 요지는 ‘물은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사람의 몸과 세포가 70% 이상의 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할 때에 우리의 느낌과 생각, 말과 행동이 그대로 전사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호 기자